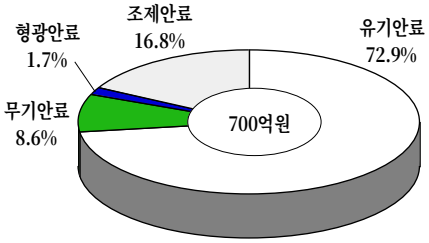
안료시장 과점현상 "심화"

상위 3개기업이 총생산의 80% 차지 … 유기안료 점차 확대

국내 안료시장의 과점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상반기 국내 안료 시장규모(매출액 기준)는 총 700억원으로 유기안료가 510억원으로 전체의 72.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무기안료는 60억원으로 8.6%, 형광안료가 12억원으로 1.7%, 조제안료가 118억원으로 16.8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기업별로 보면 대한스위스화학, 송원칼라 및 욱성화학 등 3대 안료기업이 전체 생산량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기업의 독과점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안료의 수요비중(1996. 1~6)



대한스위스화학의 96년상반기 매출액은 총 250억원으로 전체의 35.7%를 차지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, 그뒤를 송원칼라가 190억원으로 27%의 점유율을 차지해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대한스위스화학과 송원칼라는 모두 형광안료 및 무기안료는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기안료(대한스위스화학 46.5%, 송원칼라 32.4%)와 조제안료(대한스위스화학 10.5%, 송원칼라 29.5%)에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다.
유일한 형광안료 생산기업인 욱성화학은 96년상반기 140억원의 매출을 기록, 전체의 20%를 차지하는 등 조제(16.2%), 무기(32.6%), 유기(16.8%), 형광(100.0%) 등 전무분에서 고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삼보정밀화학은 72억원으로 10.3%를 차지하며 조제안료(48.4%), 무기안료(42.5%) 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다.
무기안료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색소는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5%의 저조한 점유율을 차지, 최근 무기안료 시장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.
유기안료는 대부분 자동차와 인쇄잉크에 사용되고 있으며, 무기안료는 선박, 컨테이너, 일반금속, 건축 및 도료표지용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.
용도별 수요는 도료용 75%, 인쇄잉크용 15%, 플래스틱용 6%, 기타 4%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.
무기안료는 유기안료에 비해 도료의 수요 감소에 민감,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996/10/21>